

## 근대성과 여성성 정체성의 정립

이 태 숙\*

1. 서론
2. 본론
  - 1) 근대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 2) 한국 근대문학의 식민성
  - 3) 여성성과 성욕의 근대적 의미 맥락
3. 결론

### 초록

한국 근대문학에서 여성문학이 배제되고 폄하되어 왔던 상황은 근대문학의 논리가 남성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져 왔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여성문학을 정당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문학성 자체에 대한 재론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근대문학에 대해 여성문학의 입장에서 재론이 요구되는 것은 한국문학사의 시각 자체에 대한 관점의 재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성을 흔히 계몽적 합리성의 입장에서 규정해 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한국문학의 논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여성문학은 항상 타자성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대성 자체를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필연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러한 근대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성이야말로 근대성의 역동적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근대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식민성과 여성성의 문제이다.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식민성은 흔히 근대성에 대립되는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성은 서구의 식민성과는 다른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동일화의 대상으로서의 식민성이라는 독특한 양상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

\* 부경대 강사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주체와 식민성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근대 초기 여성주체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흔히 산업화, 서구화를 근대화로 간주하는 논리에서 배제되어 왔던 성욕의 문제가 근대적 여성주체의 정립에서 가지는 의미도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성의 타자로서 여성성을 논의하는 남성문학의 논리에 따르면 여성주체는 언제까지나 반근대성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 여성성은 오히려 근대성의 의미를 심화하고 그 모순적 상황을 드러내는 계기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이 새로운 근대성의 의미를 규정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 1. 서론

한국문학에서 페미니즘의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들은 이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여성작가들이 여성적 문학 비평 방법론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 우리 문학 전반을 휩쓴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론들도 비평담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페미니즘 비평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서구이론의 수입이 정작 한국문학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연구자들의 양적인 증거를 뒷받침하는 질적인 수준의 확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연구자들이 페미니즘 담론에 가담하게 되었음은 여성문학의 연구가 단순히 여성이라는 소재적 차원에서 떠나, 한국문학이 이제 여성문학을 거론하지 않고는 불구의 문학에 그칠 뿐이라는 당위성의 차원으로까지 이야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당위성은 여성문학이 한국문학의 문학성을 평가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여성문학 연구<sup>1)</sup>는 그러한

---

1) '여성문학연구'라든지 '페미니즘문학' 등은 구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여성주의적 문학에 국한되지 않는 여성에 의해 쓰여진 문학 일반이라는 한정에서 '여성문학'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여성주의적' 비평이라는 의

방법론의 모색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여성문학연구에 있어서 근대성의 담론을 요구함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면을 의미한다. 근대성의 담론은 문학의 본질규정을 뛰어넘는 질적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 즉 한국문학사에서 근대성을 다룬다는 것은 한국 근대문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여성문학에 근대성의 범주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성이 근대성의 타자로서 전통성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되어 왔던 저간의 사정과도 관련을 가진다. 여성성을 전통성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해야 한다면 한국 근대문학에서 여성문학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대성의 타자로서 여성문학을 규정하기보다 근대성을 여성성으로 다시 규명하는 논의가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본고는 시작한다. 그것은 근대성을 재론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한국문학사의 성격 전반에 관련되는 일이기에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한국문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문학연구는 기존의 문학사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여성문학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문학적 가치평가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작가의 사생활에 관련된 흥미위주의 관점이 대부분이었으며, 문학적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수준미달의 것으로 폄하되었었다. 70년대 이후 여성문학 비평가들에 의해 이들에 대한 문학적 평가가 시도되었지만 평가의 기준이 남성문학의 논리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연구자수의 절대적 열세로 인하여 분석 자료들이 축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페미니즘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여성문학연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으로서 페미니즘이 수용됨과 동시에 국문학 연구방법론으로서도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연구의

---

미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성주의'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페미니즘'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본인의 판단 때문이다.

주된 흐름은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질게 띠고 진행되었다. 『여성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마르크시즘적 페미니즘의 흐름과 『또 하나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 페미니즘이 그것이다. 즉 문학연구가 사상적 지형도의 틀 안에서 하나의 텍스트로 사용되는 저간의 사정이 여성 문학연구에서도 반복되어 여성문학연구는 사회운동의 일부분으로 시도 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대중적 확산이 바탕이 되어 페미니즘은 그 기반을 확장하게 된다.

문학론에서의 여성담론은 80년대 이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평담론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문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했다. 문학사에서의 여성문학의 평가는 남성문학론의 방법론적 틀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문학은 언제까지나 불완전한 문학이거나 특이한 문학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학계에서 이러한 여성담론이 초기의 소재주의적 측면을 벗어나 본격적인 여성성의 의미규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론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에서 여성성과 작품 내적 미학을 규명하려는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문학은 페미니즘이라는 서구이론에 대한 분석의 텍스트로서만 적용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여성문학학회’의 발간사에서 그 방향성을 ‘가부장적 담론이나 상업주의적인 담론에서 벗어난 학문적 토대 위에서<sup>2)</sup>’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시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결국은 문학사가 여성문학을 ‘특수한 문학’이 아닌 ‘한국문학’ 자체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학사의 시각 자체가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는 문제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여성문학이 이른바 ‘여류문학’이나, ‘소외된 문학의 복원’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가 아닌 한국문학을 더욱 심화·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문학연구가

2) 『여성문학연구』 창간호(태학사, 1999), p.7.

근대성 연구의 중심에 놓여야 하는 필연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근대 초기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는 7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초기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페미니즘적 방법론에 의한 경우보다는 남성문학의 연구방법론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강경애나 박화성과 같은 리얼리즘적 경향을 보이는 작가의 경우에는 많은 논문이 쓰여졌지만 여타의 경우는 매우 희소하였다. 새로운 방법론은 새로운 연구대상의 가치를 창출한다. 페미니즘의 연구방법론은 문혀 있던 근대 초기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나혜석이나 김일엽과 같은 작가의 경우 이들에 대한 학위논문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이들이 남성연구자에 의해서 다루어진 경우에는 ‘작품이 없는 작가’<sup>3)</sup>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사에 대한 대중적 흥미가 중심이 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들어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학문적 조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史的 意義 외에 문학성의 측면에서는 결여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두 작가의 작품경향이 이른바 근대문학형식으로서의 시나 소설보다는 평론이나 수필류의 글들에 중심이 두어졌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경우는 근대문학 형성기의 한국문학이 보여 주는 특수성이 연구의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점이 결여되어 있는 한 언제까지나 미완성의 문학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경애는 비교적 연구업적이 누적되어 있는 작가인데, 이것은 물론 그의 작품의 가치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가 한국문학연구 방법론의 중심이었던 리얼리즘 문학의 연구방법론에 적합한 작가였다는 점이 더 타당한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성문학으로서의 그의 작품이 평가되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흔히 간과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적 여성문학이 흔히 보이는 성격으로서, 여성차별의 원인을 계급적 측면에 중심을 둬으로써 가부장제의 문제점이 회

3) 김윤식, 「人形意識의 파멸」, 『韓國文學史論考』(법문사, 1973).

석되고 마는 경향이라거나, 혹은 여성을 부르주아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여성으로 재단함으로써 여성간의 연대의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과 같은 경우가 종종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한국문학사의 방법론으로서의 페미니즘 이론이 종종 당위성만 강조될 뿐 실제 문학작품의 분석에 있어서는 리얼리즘 방법론이나 모더니즘 방법론이 적용되는 데서 빚어지는 오류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문학의 소재주의적 한계, 당위성의 측면 등을 벗어나 실제 문학사적 시각의 보편성을 여성문학 안에서 정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근대성과 여성주체의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여성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으려는 시도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근대문학에서 근대성의 담론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여성문학이 근대성의 담론을 재론할 수 있는 여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에서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식민지 문학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의 성격인데, 본고는 한국문학의 특수성으로서의 식민성의 성격에 대하여도 그 의미를 재론하고자 한다.

## 2. 본론

### 1) 근대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근대성의 담론은 한국문학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의 중요한 주제이다. 근대성이 시기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라든가, 혹은 제도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최근의 근대성 연구의 중심에 놓여 있다. 초기에 우리문학에서 근대성에 대한 시각은 근대성을 시기의 문제로 규명하고자 하는 입장이 중심이었다. 그것은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근대의 기점에 관한 논쟁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당

시 사학과와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근대성 논의의 성과들이 바탕이 된다. 문학에 있어서 근대에 관한 논의는 근대문학의 기점에 관한 논쟁이 중심이 된다. 김윤식·김현의 『韓國文學史』(민음사, 1973)는 근대의식과 언어의식이라는 기준을 통해 문학사를 재구성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를 한다. 두 학자는 ‘조선조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정신을 근대의식이라 보고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이 표현된 것이 언어의식’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대의식은 18세기 英正朝시대까지 소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론에는 문학성의 기준이 배제되어 있음이 김용직에 의해 지적된다.<sup>4)</sup> 근대문학이라는 것은 근대정신이 실제로 문학형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英正朝시대 기점론은 민족주체의식의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된 비학문적 소산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후 지속된 근대성 논의의 중심에는 결국 근대성을 진보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근대성이란 이러한 경우 합리성과 남성성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근대성 논의가 역사학적·사회학적·경제학적 실증주의와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에 반하여, 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바탕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철학적, 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다시 시도된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거의 한 세대를 경과한 이후에 그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문학의 중심에 다시 등장한다. 새로운 근대성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사실 한국문학 방법론에 있어서의 혼란이 이면에 자리잡고 있었다. 즉 한국문학의 시금석과도 같았던 리얼리즘이니 모더니즘이니 하는 문제들이 역사적·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현실문학의 토대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과정에서 근대성의 담론이 재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논의의 중심으로 등장한 근대성은 진보로서의 관점이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를 보류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이른바 미적 근대성, 아이러니로서의 근대성,

4) 金容稷, 『韓國近代詩史 上』(學研社, 1986), pp.30~36.

자본주의의 체험으로서의 근대성, 혹은 제도로서의 근대성 등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론적 거점들만큼이나 통일된 인식이 부재하는 것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미적 근대성의 개념이란 특히 모더니즘적 세계관에 기반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의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리얼리즘 문학의 총체성의 개념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모더니즘 작가들이 근대세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이러한 근대성 분석의 중심에 놓인다.<sup>5)</sup> 이러한 근대성에 대한 인식은 서구 근대 철학의 철학적·미학적 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리얼리즘 문학과 대치되는 모더니즘 문학의 변별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철학적·미학적 세계관으로서의 근대성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비슷한 관점을 취하는 근대성의 담론이 근대성을 하나의 도시체험에서 찾으려는 경향이다.<sup>6)</sup> 도시체험에서 근대성의 의미를 찾으려는 연구경향은 미적 근대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미학적 모더니즘의 근대성 개념에 국한된다. 이러한 입장은 실증적 측면이 강조되고, 미적 경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범주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모더니즘에 국한된 근대성 논의의 틀을 벗어나려는 근대성에 대한 연구가 아이러니로서의 근대성이라든가, 혹은 제도로서의 근대성을 밝히려는 연구들이다.<sup>7)</sup> 두 가지 연구경향은 일정부분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60년대에 시도되었던 근대의식으로서의 근대성의 개념에 회귀

5) 대표적인 예로 한상규, 「1930년대 모더니즘의 미적 자율성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가 있다.

6) 최혜실, 『한국 모더니즘 소설연구』(민지사, 1992).

조영복, 「1930년대에 나타난 근대성의 담론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 강상희,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내면성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종욱,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의 시간·공간 구조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서영채, 『소설의 운명』(문학동네, 1996).

炳谷行人, 박유하 역, 『日本近代文學의 基源』(민음사, 1994).



한다. 그러나 60년대의 근대성 개념이 사회·경제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전개되었다면, 90년대의 근대성 담론은 철학적·미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물론 90년대의 근대성 담론의 기저를 형성하는 것은 60년대의 구조주의적, 실증주의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성과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90년대의 근대성 담론은 8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형성한 탈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의 연장선상 위에 놓여있다. 즉 계몽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근대성은 계몽주의적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의 영역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근대의 계몽적 합리성이 세계를 인식하는 기반이 되어 왔던 것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었다. 즉 세계를 선과 악,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정 등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전자를 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 상에서 항상 열등한 범주로 간주되어 왔던 부분들의 의미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고하자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sup>8)</sup> 이렇게 근대적 이분법의 영역 안에 놓여 있던 미학의 기준들이 붕괴되는 것은, 곧 근대 미학의 기준을 여성의 입장에서 재정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근대성과 여성성이 조우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한국 근대문학을 여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노력이 의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기존의 근대의 개념에 대한 하나 하나의 분석을 필요로 함은 당연하다. 근대성을 여성적 의미에서 재검토하는 연구는 계몽적 합리성으로 규정되어 왔던 근대성의 의미를 거부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성의 의미를 전도하는 작업이 아닌 근대성의 확장이자 심화이다.

근대성 문제를 시작하면서 항상 서두에 놓이는 것은 용어의 문제이다.

8) 마르크스는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3」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맑시즘이야말로 계몽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역동적 근대성의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이진경, 「마르크스주의의 근대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민음사, 1994).

근대와 현대의 문체는 시각에 따라 각각의 내용을 부여받는다. 이 문체는 특히 우리 나라에서 용어의 혼용이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어에서 근대를 표현하는 용어는 modern이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 혹은 한국전쟁 이후의 개념으로 쓰는 현대는 근대와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서구에서 우리가 현대의 개념으로 쓰는 용어는 2차대전 이후를 가리키는 當代(contemporary)이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의 여타 범주에서는 modern을 현대로 번역하고 있지만, 국문학 연구에서는 근대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은 국문학 연구에서 근대성 연구가 70년대에 시작하면서 굳어져 온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는 근대성이라는 용어가 70년대의 시점에서는 계몽적 합리성으로서의 근대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면서도 상이한 내포에 대해 동일한 외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포가 달라진 경우 마땅히 용어도 다시 규정되어야 하지만 아직 용어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기보다는 관행으로 굳어져 온 데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근대성은 계몽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근대(modern)의 의미를 다루고 있지만, 논의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국문학 연구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서구 문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논의하기 위해 재등장한 근대성의 담론은 리얼리즘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으로 나뉘어 있던 80년대 우리문학의 지형도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다. 리얼리즘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근대성의 담론에 대한 요구는 근대 논의의 확장을 요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근대성을 보다 역동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 관점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데카르트에서 칸트로 이어지는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몽적 이성으로서의 근대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계몽적 근대성으로서의 근대적 의미의 다양한 양상을 담아낼 수가 없다고 보고 근대성에 대한 차별적 관점을 시도하려는 것이 새로운 근대성 논의의 핵심인데, 물론 이러한 관점은 계몽적 이성으로서의 근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성격의 것이다. 그 예로 볼프강 벨쉬의 역

동적 근대성의 개념과 마살 버만의 아이러니로서의 근대성, 그리고 가라타니 고진의 제도로서의 근대성들이 주목되는 바이다.

우선 초기 근대의 개념이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근대적 사유의 특성을 근본적인 새로움의 파토스(ein Pathos des radicalen Neuanfang)와 보편성에의 요구(der auf **Universalität**)로 보는 볼프강 벨쉬의 견해가 있다. 그는 여기에 대항적 근대(eine Gegen-Neuzeit)의 개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근대의 근본성과 보편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역동적으로 만드는 근대의 동학(dynamism)을 구성한다고 본다. 그는 오직 배타적인 하나의 진리만이 가능한 근대성과 모던의 뒤를 잇는 것은 다원성(Pluralität)과 특수성(Partikularität)을 인식론적 바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sup> 벨쉬의 근대성 논의는 근대가 역동적인 자기비판을 통하여 진보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에 의하면 대립적인 것은 반대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단지 무시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고양하고 확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벨쉬의 분류는 근대성의 철학적 인식론적 기반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논의점을 제공한다. 근대성을 계몽적 기반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동적 근대성의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은 모더니즘 운동과 야망가르드운동의 모호성, 불확실성, 위기 등과의 연관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문학에서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면, 한국문학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김윤식은 임화의 문학을 논의하면서 전통성과 근대성을 구분하고 있다.

이 소년의 시각 속에 자기의 전통 문화란 혼돈, 정체, 몽매, 자연성, 암흑, 성적 방종, 피, 여인, 어머니, 땅 등 <자연적 모습>으로 요약되는 것. 다시 말해 시간, 공간의 차이성으로 보였다. 자연의 정식화랄까 범칙성이 결여될 감성적, 주관적 세계가 전통 문화라면, 이에 대응되는 신문화란 계량화될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되는 객관적 세계였다.<sup>10)</sup>

9) Wolfgang Iser, 주은우 역,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민음사, 1994).

임화가 실제로 전통성과 근대성의 인식론적 내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가는 일단 논외로 하고, 근대성의 내포가 ‘계량화될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되는 객관적 세계’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 때 근대란 데카르트적 합리성으로서의 근대인 것이다. 즉 임화로 대표되는 근대주의자가 근대의 사유형식으로서 과학적 합리성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김윤식이 反近代를 설명하는 예로 드는 것은 김동리와 조연현이다.<sup>10)</sup> 이른바 <구경적 삶의 형식>이라는 논리가 근대에 대항할 수 있는 반근대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반근대가 합리주의적 사유의 형식을 거부하는 전근대의 논리와 닿아 있고 따라서 근대 극복이나 탈근대의 논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입증함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 문학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은 벨쉬의 분류에 따른다면 김윤식이 근대를 역동성의 측면을 배제한 합리성만의 계몽적 근대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의 근대성을 근대와 반근대로 규정하는 이러한 인식적 방법은 문학이 발전한다는 진화론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이중적 구도로 문학을 범주화하는 방법은 일견 문학적 인식을 단순화함으로써 각각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장점은 있지만, 대립은 개별 작가와 작품들이 보이는 차이의 다양성을 은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성을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근대에 대립한다고 규정되는 전통이야말로 근대의 합리성을 고양하고 확장하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근대, 반이성, 전통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 온 여성도 근대의 역학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몽이성으로서의 근대성의 한정적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 근대를 좀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견해이다.

벨쉬처럼 근대성을 보다 심화된 의미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으로는 고진과 버만의 근대성 개념이 있다. 문학사에 있어서 근대라는 문제

10) 김윤식, 「우리 근대 문학 연구의 한 방향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민음사, 1994), p.242.

11) 김윤식, 위의 글, p.258.

를 대립과 모순으로 구성되는 존재로 규정하고자 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체도로서의 근대 개념은 마살 버만의 근대성 개념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먼저 버만의 근대성의 개념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낸다. 이 경험은 철저하게 아이러니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근대성의 핵심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12)</sup>

고정적이고 또 빨리 결속되는 모든 관계는 고대의 유서 깊은 일련의 편견 및 견해와 함께 사라져 버렸고, 새로 형성된 모든 관계는 그것이 굳어지기도 전에 이미 골동품화되어 버린다.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리고, 신성한 모든 것은 세속화되며, 인간은 마침내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들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조건과 …… 대면하게끔 되어 있다.<sup>13)</sup>

흔히 모더니즘에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리얼리즘이다. 그러나 버만은 마르크스의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르크스야말로 진정으로 모더니즘 정신의 본질을 드러내 준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계몽적 합리성은 근대성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근대성은 근대적 현실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삶의 구체성이 만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버만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흔히 반근대, 혹은 전통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여성성이야말로 근대성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집약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의 여성작가들이 보여 주었던 근대적 여성주체에 대한 집요한 탐구와 그들의 좌절의 履歷들은 계몽적 합리성으로 규정되어 왔던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의 근대정신이 과연 정당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묻게 한다. 오히려 여성작가들이 주장했던 근대적 인간주체의 근본 요건에 대한 중심 질문들이야말로 진정한 근대정신의 본질이었고, 그들의 좌절과 몰락

12) Marshall Berman, 윤호병·이만식 역, *All That Is Milts Into Air : The Experiences of Modernity*(현대미학사, 1994).

13) Marshall Berman, pp.475~476. 위의 책에서 재인용, p.19.

의 과정은 가부장제의 완고한 반근대적 저항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여성이기에 오히려 억압의 강도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전근대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있던 남성들보다 전근대의 모순적 논리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야말로 근대적 인간주체의 의미에 대해 보다 절실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주체의 의미가 근대적 주체의 중심적 의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버만은 피테의 파우스트, 마르크스, 보들레르, 그리고 근대의 작가들에게서 드러나는 공간들에서 근대성이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철저하게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들 속에서임을 밝혀내고 있다. 여기에서 버만의 근대성 개념이 벨쉬의 역동적 근대성의 개념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성의 문체가 아이러니와 역동적 근대성의 논의로 수렴되는 것은 근대성 논의에 또 하나의 혼란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근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계몽적 근대성이 은폐하고 있는 근대성의 동적(dynamic) 성격인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성 개념은 제도로서의 근대성으로 이야기된다. 그것은 산업화, 서구화를 의미하는 근대성이 아닌 인식의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문학이 규정되어 왔던 방식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메이지 20년대에 형성된 <국문학> 또는 <문학사>는 고대에서 중세, 근세, 근대로 향하는 문학의 <진화>, <심화>, <발전>이 있더라도 한 것처럼 문학을 배치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근법적 시각에 대해 다른 원근법적 시각(예를 들면 <반근대>주의와 같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자명하게 만들고 있는 배치를 주시하는 것이다.

이 논쟁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물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항상 대립 또는 모순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라는 형태, 바로 그것이 <문제>를 존재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대립 또는 이분법에 의해서만 <의식>할 수 있지만, 적어도 <문제>가 <각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논쟁(대립)으로 형성되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내는 것과 동시에 무엇인가를 은폐하기 마련이다. 이는 <정치와 문학>의 논쟁이든, <전후문학> 논쟁이든 마찬가지이다. 대립이 은폐하는 것은 차이의 다양성이다.<sup>14)</sup>

고진에게 있어서 근대성의 문제는 다양한 차이들의 의미이며, 인식의 틀이 형성되는 힘의 균형이다. 그것은 문학을 하나의 제도로서 인식하는 독특한 의미망으로 형성되며, 여기에서 일본 근대문학이 가지는 주체의 문제가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고진에 의하면 일본 근대문학의 주체는 서구문화의 주체성 개념에 대해 일본적 주체를 형성하려는 대립의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한다. 같은 상황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주체는 무엇을 대타의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일본문학인가 아니면 서구문학인가. 물론 한국문학에서 근대적 주체의 문제는 일본보다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흔히 문학을 진보의 관점에서 보려하는 시각이 은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간과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을 계몽적 근대성의 입장에서 보려하는 시각이 은폐하는 것은 한국의 근대적 주체가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이다. 한국문학에 있어서 근대적 여성주체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해 왔다는 점이 흔히 남성중심의 문학사에서 은폐되어 왔음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에서 여성주체의 입장을 단일화하려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고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폐되는 것은 근대적 주체가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근대적 주체의 개념은 근대적 여성주체의 정립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획일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러한 다양한 근대성의 본질에 관한 논의들은 결국은 한국 근대문학을 또 하나의 틀로 묶어 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의 다양성과 총체성을 지향하는 관점에 의

14) 炳谷行人, 앞의 책, pp.192~193.

해 은폐되어 왔던 근대성의 새로운 국면을 해명하는 데 논의의 중심이 놓이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대문학이 계몽적 합리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계몽적 이상의 타자로 규정되어 왔던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한국 근대문학의 식민성

한국 근대문학에서 근대성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식민성(coloniality)이다. 그것은 ‘조선의 근대문학이 이식문학의 역사로서 시작되었다’는 입화의 논의<sup>15)</sup>와 ‘한국의 근대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는가’ 하는 근대의 기점에 관한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 제3세계 국가의 근대성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근대성의 이면이면서 그 설명방식이기도 하다. 즉 한 국가의 근대적 주체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민족自尊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위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근대성을 지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이다. 흔히 이 문제가 간과된 채 근대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지배자의 입장이야말로 우리의 근대성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지점이고, 바로 식민성이 근대성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우선 식민성은 서구중심성의 대타개념으로 설정된다.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는 서유럽 및 북미인들의 가치들을 명시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넘어서 서구 중심주의가 실로 ‘진리’를 규정하며,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의 영역에 있음을 의미한다.<sup>16)</sup> 그것은 결국 식민성의 문제가 합리적 이성에 의한 가치판단이라는 계몽적 근대의 이상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따

15) 林和, 『新文學史의 方法』, 『文學의 論理』(學藝社, 1940), p.819.

16) 백낙청,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 비평』, 105호(창작과비평사, 1999).



라서 식민성의 의미를 묻는 일은 근대성의 논의가 내포하기 쉬운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식민성은 실제 식민지 상태에서 가장 뚜렷하게 예시되지만 그에 한정되지않은 앓는 권력관계 내지 사회관계를 폭넓게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광의의 식민성의 개념은 그 특징으로 공식적인 식민지 상황에서 보이는 법률적인 불평등의 상황뿐만 아니라 인종과 종족에 대한 차별주의, 관권주의, 성차별주의, 서구중심적인 지식구조 등 다른 형태의 온갖 지배와 배제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전체 하에서 일제 강점기하의 우리 근대문학이 보이는 식민성의 문제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즉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대타개념으로 일본문학이 가지는 식민성을 또다시 대타개념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한국 근대문학의 식민성의 개념인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문학의 식민성의 문제가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필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오카쿠라 텐신(1862~1913)의 『동양의 이상 The Idea of the East』은 <아시아는 하나다 Asia is one>라는 문장으로 첫머리를 시작한다. 오카쿠라는 서양의 대타개념으로 놓여진 아시아의 정체성을 거부한다. 그는 동양(아시아)이 서양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표상도 아니고, 식민지화의 운명을 공유함으로써 동일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오카쿠라는 불교의 Advatism관념을 원용하여 헤겔의 변증법을 넘어서는 데, 차이가 있고, 다양한 것들의 동일화를 의미하는, 서양적 보편성을 넘어서는 동양적 보편성을 찾아낸다.<sup>17)</sup>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오카쿠라의 범아시아주의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서양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당했다. 따라서 범아시아주의는 식민지인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근대의 얼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분명히 지적해야만 한다. 즉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타자로서 규정해 왔다면, 일본의 식민주의는 식민지를 동일화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오카쿠라의 범아시아주의

17) 柄谷行人, 앞의 책, pp.58~61.

는 일본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조선의 입장을 설명한다. 즉 일본에게 있어서 조선은 타자화되는 대상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이 아닌 또 하나의 일본으로서 일본의 팽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 일본의식의 커다란 한 주제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일본정신이 끝없는 나르시즘적인 자기투영을 통해 팽창해 왔음을 의미한다.<sup>18)</sup> 즉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문학의 식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대성의 대타개념으로서의 식민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식민성의 동일화 대상으로서의 식민성이라는 독특한 의미항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성의 한국적 특수성, 즉 식민성의 동일화 대상으로서의 식민성을 간과할 경우 식민성에 대한 고려는 자칫 이중의 타자성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국문학자들은 근대성을 연구할 때,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한국에 적대적인 타자로 상정하면서도 실제 일본 근대문학의 여러 요소들을 서구의 그것을 받아들인 같은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이 얼마나 한국 근대 문화에 교묘하게 침투해 있었는가를 간과하고 만다. 일본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한국을 강탈하고 한국민을 핍박했는가에 분노하고 문학의 내용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려 하면서도 형식 속에서 드러나는 데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단지 일본이 자연주의, 낭만주의 같은 온갖 서구 문예사조나 문학형식들의 중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실상 일본의 동조론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형식을 수입하는 점에서 너 일본이나 나 조선이나 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그리고 형식 속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겠느냐는 안이함은 우리가 이중적인 타자성을 놓쳐 버리게 되는 사실에 놓이게 한다.<sup>19)</sup> (강조는 인용자)

논자는 한국문학에 있어서 식민성의 문제가 근대성을 논의할 때 간과

18) 이연숙, 「일본어에의 절망」, 『창작과 비평』 105호(창작과비평사, 1999), pp.104~107.

19) 최혜실, 「신여성들의 ‘고백’과 근대성」, 『한국여성문학과 여성담론』(제2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학술대회, 1999. 9), pp.73~74.

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해야만 될 문제점이 있다. 먼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이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동양에게 부여한 타자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동양인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타자가 될 경우에는 식민성(coloniality)이라 하는 것이 타당한 용어일 것이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서구적 근대성의 대타적 개념으로서의 식민성과 일본의 범아시아주의로서의 식민성은 그 내포적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할 때 타자성의 이중적 성격은 일본적 식민성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논의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논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고백체 소설이 한국 근대소설에서 근대성의 한 모방으로서 시도되었으나, 여성 고백체 소설은 식민지의 이중적 타자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근대소설의 고백체 양식은 근대성의 단순한 모방이지만, 여성 고백체 소설은 식민지의 이중적 타자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원화의 논리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고백체 소설이 식민성이 배제된 동일성의 논리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유독 여성 고백체 소설이 식민지적 타자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논리는 단순히 여성이 근대성의 타자로 규정되어진다는 주장의 이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성성이 근대성의 타자로 규정된다는 논리에 입각한 분석은 여성성이 반근대성으로 고착하고 말 위험성을 내포하며 전개된다. 이러한 논리가 다다르게 될 결론은 이미 예견되는 것인 바, 논자 스스로도 지적했듯이 ‘페미니즘을 강조할 때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근대성을 강조할 경우; 인용자), 이론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는 위험이 존재<sup>20)</sup>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성 자체를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당연히 도달할 수밖에 없는 논리이며, 일본의 식민성에 대한 성격 규명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오류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근대성이 어떠한 형태로 식민성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어

20) 최혜실, 앞의 글, p.75.

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식민성을 여성성과의 연관하에서 보는 논의로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을 들 수 있다. 스피박은 식민지 여성주체의 문제를 하위주체의 문제로 범주화하는데, 이것은 서구 중심의 근대성과 정체성에 대한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인식을 식민지 현실과 연관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진다. 이를 위해 스피박은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하위주체(subaltern)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람시의 하위주체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층위에 국한되지 않는 전지구적 차원의 억압의 본질을 의미한다. 스피박은 그람시의 하위주체의 개념에 여성 성별(gender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피식민지 하층계급 여성의 여성성을 규명하는 범주로 삼는다.<sup>21)</sup> 스피박의 논의는 단순히 근대성의 타자로서만 범주화되기 쉬운 피식민지 여성성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성성을 어떻게 재현하느냐라는 텍스트 내적 부분으로 들어올 때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국 근대 여성문학에서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성의 문제는 하층계급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여성육체의 이중성의 문제에 천착했던 강경애에 의해 강조된다. 식민성은 근대성의 타자로서 규정되지만 역시 근대성의 타자로서 규정되는 여성성과의 관련하에서 본다면 식민성은 여성성의 모순과 질곡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인 것이다. 그러나 식민성과 여성성을 관련시키는 경우에도 한국문학의 식민성이 가지는 특수성의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학의 식민성은 단순히 근대성의 타자도 아니고, 여성성은 근대성에 의해 이중적으로 타자화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성을 계몽적 합리성에 국한시키려는 관점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지만 근대성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파악한다면 식민성과 여성성이야말로 근대성의 의미를 심화, 확장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주체의 정립과 식민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성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21) Gayatri Spivak, 태혜숙 역, *Can the Subaltern Speak? ; in Ma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세계사상』 4호(동문선, 1998).

### 3) 여성성과 성욕의 근대적 의미 맥락

근대성을 계몽적 합리성을 벗어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규정한다면 근대성이 타자로 규정한 식민성과 여성성의 의미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식민성이 근대성의 모순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여성성이 보다 적극적인 근대성의 국면을 도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성에 대한 논의 역시 근대성의 범주 안에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근대성의 의미가 재론되어야 한다면 여성성의 의미 역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여성문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는 근대적 여성성과 성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근대 초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현재성을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양자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이 어떤 내적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한국문학의 근대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를 드러내준다. 한국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성은 몇 개의 구별되는 단어들로 의미해 왔다. 그것은 여성성(feminity), 그리고 성을 의미하는 sex, gender, sexuality를 번역하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사실 이러한 단어들의 엄밀한 차이를 밝히는 일은 서구 페미니즘에서도 완결되지 못한 바이다. 물론 그 까닭은 학문적 문제가 아닌 이러한 개념들이 생성 변화하는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에서 이들 개념에 대한 인식은 용어의 혼재라는 상황이 드러내듯이 변별성의 상실의 차원으로까지 이야기될 수 있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성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남성성(masculinity)의 대타적 개념으로서의 여성성(feminity)은 이른바 여성적 성격, 부드러움, 모성, 수동성, 순결성, 비합리성 등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성은 관계적이며, 변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의 여성성은 관계의 양상들과 맥락의 의미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sex나 gender로서의 성은 좀더 단순한 의미들을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sex가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의 의

미를 뜻한다면, gender로서의 성은 사회학적 성이라 구분된다. 여성성이 교육되고 학습되는 것이라는 후천적인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면, gender로서의 성은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여성성은 왜곡되고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과 비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반면에 sexuality는 최근에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다. sexuality는 흔히 성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프로이트에 의해 학문적으로 개념 규정된 이후에 생물학의 영역에서 정신분석학의 영역으로 범주화된다. 프로이트의 「성욕이론에 대한 세 편의 에세이」(*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에서 성욕은 무의식 주체의 성욕으로부터 성도착(perversion)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환상(fantasy)과 연결된다.<sup>22)</sup> 그러나 프로이트의 sexuality는 여성의 성욕을 남근선망(penis envy)과 연결시킴으로써 여성 성욕의 존재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우월주의적 한계를 보여 준다고 비판받는다. 프로이트의 여성성욕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며, 자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성욕이 형성되는 사회적·역사적 과정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 슬라미스 파이어스톤이나 케이트 밀레트 같은 페미니스트에게 프로이트의 여성성욕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남성적 편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의 억압이 …… 불변적인 것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컨텍스트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탈구조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sexuality는 관계들이 드러내는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푸코는 성이 억압된다는 억압가설을 부인한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차별의 근거로 삼는 억압가설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그는 지식의 의미에 도전을 던진다. 푸코에게 성이란 권력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지식의 일종이다. 그에게 권력이란 ‘출현영역에 내재하며 하나의 조직된 전체를 구성하는 세력관계들의 다양성이고, 끊임없는 투쟁

22) Richard Wollheim, 조대경 역, *Freud*(민음사, 1992), pp.111~130.

23) Shulamith Firestone, 김예숙 역, *The Dialectic of Sex*(풀빛, 1996), pp.51~79.

과 충돌을 거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강화하며 역전시키는 놀이이고, 그러한 세력관계들이 연쇄나 체계를 형성하게끔 서로에게서 찾아내는 뒷받침 또는 반대로 그것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괴리와 모순이며, 마지막으로 세력관계들로 하여금 효력을 발휘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의 기구들, 법의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주도권(hégémonie)을 통해 전반적 구상 또는 제도상의 결정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전략이다.<sup>24)</sup> 푸코에게 성이 권력의 이러한 작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제라면, 그에게 성적 주체의 의미가 어디에서 규정되는가는 보다 명백해 보인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 부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 욕망도 결국은 상상적인 요소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푸코에 따르면 페미니스트들이 중심가설로서 설정해 왔던 논리들이 의미를 잃게 된다. 페미니즘은 여성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예측시키고, 분리시키고, 평가절하해 온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의 역사를 통해 존재해 왔다. 근대성의 범주를 형성하는 이러한 논리들은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실제와 진실, 원인과 결과, 자유와 인간의 자발적 행위의 본질에 대한 가설들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 따라서 푸코가 이러한 계몽주의적 가설들의 진실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다면 페미니즘의 담론들도 함께 재론되어야 하는 것이다. 푸코는 가부장제의 <진실>에 대한 페미니즘의 개념이 지니는 한계성과 엄격성을 들추어내면서 페미니즘을 비판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중립적이라 간주되면서 담론으로 생산된 진실과 권력, 섹슈얼리티에 대한 푸코의 분석이 남성적 관점에서 나온 것임을 푸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sup>25)</sup>로 그를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들이 푸코에게 가지는 관심은 성과 신체를 육체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산물로서 간주하는 그의 논지의 장점 때문이다. 푸코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지는 유용하면서도 위협한데, 그것은 동시에 페미니스

24) Michell Foucault, 이규현 역, *Histoire de la Sexualité*(민음사, 1990), pp.106~107.

25) Caroline Ramazanoğlu, 최영 외 역, *Up Against Foucault*(동문선, 1997), p.12.

트들이 섹슈얼리티와 권력에 대하여 언급해 온 가설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주관적 지식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체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동시에 남성의 지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이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주장을 뒤집은 것에 불과하다. 푸코의 섹슈얼리티 논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의 양면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성욕을 사회적 산물로 보는 관점을 따른다면, 여성성욕의 존재는 근대성의 측면에서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근대문학에서 근대 초기 여성문학인들의 삶이 수많은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음을 상기한다면, 여성성욕의 문제는 근대성의 모순을 드러내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푸코가 성욕으로서의 성이 사회적·역사적으로 규정되는 양상에 주목한다면, 기든스는 현대사회에서 성욕이 드러내는 개인적인 의미에 중점을 둔다. 먼저 그는 푸코의 섹슈얼리티의 개념이 가지는 일방성을 비판한다. 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면, 그 용어 속의 발상, 개념, 이론들은 사회적 삶을 구성하게 된다. 푸코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정은 ‘권력- 지식’이 사회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고정되고 일방적인 방향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보다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중시한다. 그것을 기든스는 <제도적 성찰성(institutional reflexivity)>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그것들이 사회적 삶 속으로 도입되는 과정은 기계적이거나 통제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들이 선택하는 행동의 기본틀이라고 규명된다.<sup>26)</sup> 기든스의 논의는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증적인 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조형(造型)적 섹슈얼리티(plastic sexuality)의 창조, 곧 재생산, 친족관계 그

26) Anthony Giddens, 황정미 외 역,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y*(새물결, 1995), pp.67~72.



리고 세대 등에 오래 전부터 통합되어 있던 관계로부터 끊어져 나온 섹슈얼리티의 탄생은 지난 몇 십 년간의 성해방을 가능케 했던 전제조건이었다. 대부분의 문화, 그리고 대부분의 시대에 걸쳐, 대다수 여성들에게 성적 쾌락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었다. 출산 중의 산모 사망률과 높은 영아사망률을 상기해 볼 때, 반복되는 임신에의 공포는 곧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관관계의 단절은 진정으로 근원적 함의를 갖는 현상이다.<sup>27)</sup>

제도적 성찰성으로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또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푸코와 기든스가 구별되는데, 푸코가 억압가설을 부인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중심가설을 부인한 반면 기든스는 여성성욕이 드러내는 근대적 의미들의 역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성욕이 드러내는 근대적 의미의 양상들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성욕이 여성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성욕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성욕에 대한 주장들을 검증함으로써 근대성에 대한 입장의 편차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여성의 성욕은 남성성욕과 달리 철저하게 존재 자체가 거부되어 왔기 때문에 거론이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 근대 여성문학에서 특히 성욕의 문제가 중심에 놓였던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등의 경우에 성욕이 드러내는 근대적 의미함이 여성문학이었기에 더욱 절실하게 제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성욕에 대한 차별적 억압에 대항하는 과정을 통해 세 사람은 한국의 근대성이 내포한 가부장제의 허위인식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sup>28)</sup>

근대성을 여성성의 입장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가장 경계해

27) 위의 책, p.66.

28) 성욕과 근대초기 여성문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줄고,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에서 나혜석과 김일엽의 문학을 분석하는 기제로써 다루고 있다.

야 할 부분은 여성성을 억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남성문학에 의해 타자화되는 대상으로서 여성성을 규정할 경우 여성성을 반근대성으로 규정하거나, 근대성을 남성문학이 그러했듯이 여성문학 중심으로 한정적 의미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성과 근대성이 가지는 관련성에 주목한 펠스키는 버만의 근대성관점을 비판하면서 그의 근대성을 남성적이라 규정한다. 펠스키는 버만의 『파우스트』 분석에서 그레에트헨이 근대적 논리에 의해 희생당한다는 사실을 강조<sup>29)</sup>한다. 그러나 펠스키는 그레에트헨을 통해 파우스트가 진정한 근대성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버만은 물론 근대성의 성별을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그레에트헨의 파멸이 중세의 붕괴와 근대의 탄생의 결정적 측면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0)</sup> 펠스키의 경우 근대성을 설명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논리의 한계에 대해 통찰력 있는 비판을 보여 주었지만, 근대성을 성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해 근대성의 일면을 파편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여성성을 타자화하는 남성적 근대성도 문제지만, 여성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항신화를 구성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신화를 역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여성이 역사적 과정과 맺는 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그는 근대에 대한 포괄적인 페미니즘의 신화를 보여 주는 대신 다양한 재현물들에 대한 독해를 통해 근대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바탕을 인식론적 측면에서가 아닌 정치적 실천 속에서 찾는다. 이러한 시도는 입장의 다양성과 여성성이 가지는 개성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근대성과 여성성의 관계의 양상에 대해서는 파편적인 진술만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근대성을 성별화하는 입장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은 근대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다. 계몽적 합리성으로서의 근대성,

29) Rita Felski, 김영찬·심진경 역, *The Gender of Modernity*(거름, 1998), p.23.

30) Berman, 앞의 책, p.70.

남성적 근대성을 타자가 아닌 근대성 안에 구현되어 있는 동적 계기의 하나로 파악하는 시도는 여성만의 문학사가 아닌 한국문학사 전체에 대한 가치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근대초기 여성작가들의 경우에 그들은 구시대의 여성성과는 다른 근대적 여성성을 정립하려 노력하였다. 그것은 계몽적 남성성의 표상으로서의 여성성도 아니었고, 구시대의 논리에 기반한 여성성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에 정면으로 대응하였다. 그러한 시도들은 물론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지만, 용기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으며, 근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이었다.

### 3. 결론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 여성주체의 정립에 관한 문제는 남성문학의 논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성문학의 논리를 유지한 채 여성문학을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는 정당한 의미 부여는 불가능하다. 여성문학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 자체를 여성문학의 시각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본질에 관한 시각으로서의 근대성에 대해서 먼저 여성문학의 시각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한국문학을 하나 하나의 개별 작품이 아닌 총체적 경험으로 해석함으로써만이 가능해질 것이며, 그것은 한국문학의 특수성으로서의 여성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여성성들이 드러내는 한국문학의 지형도를 살피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코 또 다른 자료 진리성을 재단하는 편가르기의 작업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적인 것의 표상으로서의 근대성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문학에서 여성문학이 가지는 위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이

며, 그러한 작업에 식민성이 논의되어야 함은 한국문학의 특수성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근대성을 합리성이라든지, 계몽적 이성과 같은 좁은 범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근대성을 대립과 모순의 역동적 동학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움으로의 지향이라고 규정한다면 여성성이 근대성과 조우하면서 드러내는 역동적 의미들을 해석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여성성 역시 남성성에 대립되는 타자로서의 소극적 측면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근대의 의미항들과 맞설 때, 여성성이야말로 근대가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움으로의 파토스, 보편으로의 욕망을 드러내는 지표이며, 여성성과 근대성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여성성은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새롭게 규명하고, 그 역동적 계기를 강화하며 한국문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중심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n Modernity and Woman - identification

Lee, Tae-Suk

It is natural that feminine literature has been excluded from and denounced by modern Korean literature because the logic of modern literature has formed by male dominance.

In order for feminine literature takes its proper place, we should re-examine the meaning of literature itself. Such re-examination entails a discussion about the perspectives of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has prescribed by Modernity, which is commonly viewed as the rationality of Enlightenment. However, from such a perspective,

feminine literature could not always overcome the sense of <Othernes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Modernity itself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feminine literature.

If we takes a new Modernity, we can know that femininity is the very dynamic outgrowth of Modernity. The problems of coloniality and femininity are raised in order to redefine Modernity. The colonialit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commonly has been discussed in opposition to Modernity. However, we should recognize the peculiar aspects of the situation, which is formed by the concept of coloniality as being self-identified object because Japanese coloniality differed from Western coloniality.

From such a perspectives, it should be the perspectives of woman's subjects of early modern times that woman's subjects and coloniality should be discussed as subaltern. Under same relationship, we should discuss what problems are posed by sexuality, which has excluded from the logic that considered modernization as industrialization and Europeanization. If we follow the logic of male literature, which consider femininity as <the Other> of Modernity, the woman's subjects can never overcome the image of being Anti-modernity. However, we can find that femininity has served as deepening the meaning of Modernity, thereby revealing the contradictory situation of the process by prescribing the meaning of a new Modernity.

